



문화매일신문



제1530호

2024/2/6/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북도,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외식산업 넋지 효과 노린다!

2024년 공모 선정된 미식 해설사 등 4건 2억 원 본격추진

경상북도는 차별화된 지역음식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식 여행 관광상품 등 4건의 사업을 2억 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적은 예산을 들이지만 큰 변화나 효과를 낼 수 있는 넋지 또는 리버리지 전략기법을 외식 산업에 적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대하는 사업이다.

10개 시·군이 14개 사업을 응모했고 그중에서 포항시(2개), 구미시(1개), 영덕군(1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 첫 번째 포항시의 오감만족 '미식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식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단순히 음식만 맛보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국 최초 시행하는 '미식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져 포항 음식문화 브랜드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두 번째 정리 수납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식품접객업 40개소를 대상으로 정



리수납 사항을 점검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리 수납 컨설팅,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는 말처럼 이번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갖춘 주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구미시의 일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보급 사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제작한다. 특히, 동남아시아권에서 K-Drama, K-Pop에 이

는 K-Food의 인기가 높아 한국을 찾

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추진한다. 메뉴판에는 QR코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건과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할랄 등을 추가해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헬스 플래저를 겨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네 번째 영덕군의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은 외식산업 ESG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한다.

감량기 사용 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든 만큼 처리비

용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과정에서 불거지는 악취까지 동시에 해결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그동안 도내 식품위생업 시설개선과 식문화 개선 홍보 등에 사용되어 왔다.

또 시군별 특색있고 참신한 사업의 지속적 발굴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도 같이 추진해 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건강한 설 위해 호흡기감염병 주의를

8일까지 집중 집중기간 운영...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2023.12.5.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 첫째, 기침예절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퇴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물변 후 등
 - *비누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예방 효과 40% 향상 가능
-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하루에 최소 3회, 매번 10분 이상 창문 열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경기도 김동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발표. "올 3분기 부지선정"

돌봄까지 아우르는 혁신형 공공병원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기존 의료보다 역할, 서비스, 경영 등 3개 부문에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대응과 호스피스 등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 건강, 돌봄,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 혁신'이 있고,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 혁신'도 있다"며 "운영 혁신"으로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내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해 동북부 지역의 돌봄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출게 된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 잠정 소요 예산은 1천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 규모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는 최근 호흡기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방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독감 발생은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호흡기세 포용합바이러스감염증(RSV)과 노로바이러스감염자도 늘고 있다.

전남지역의 독감 의사환자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올해 3주차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당 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5명)보다 높고, 호흡기세 포용합바이러스감염증은 7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6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고 마스크 착용 자율화, 개인의 외부활동 증가로 다양한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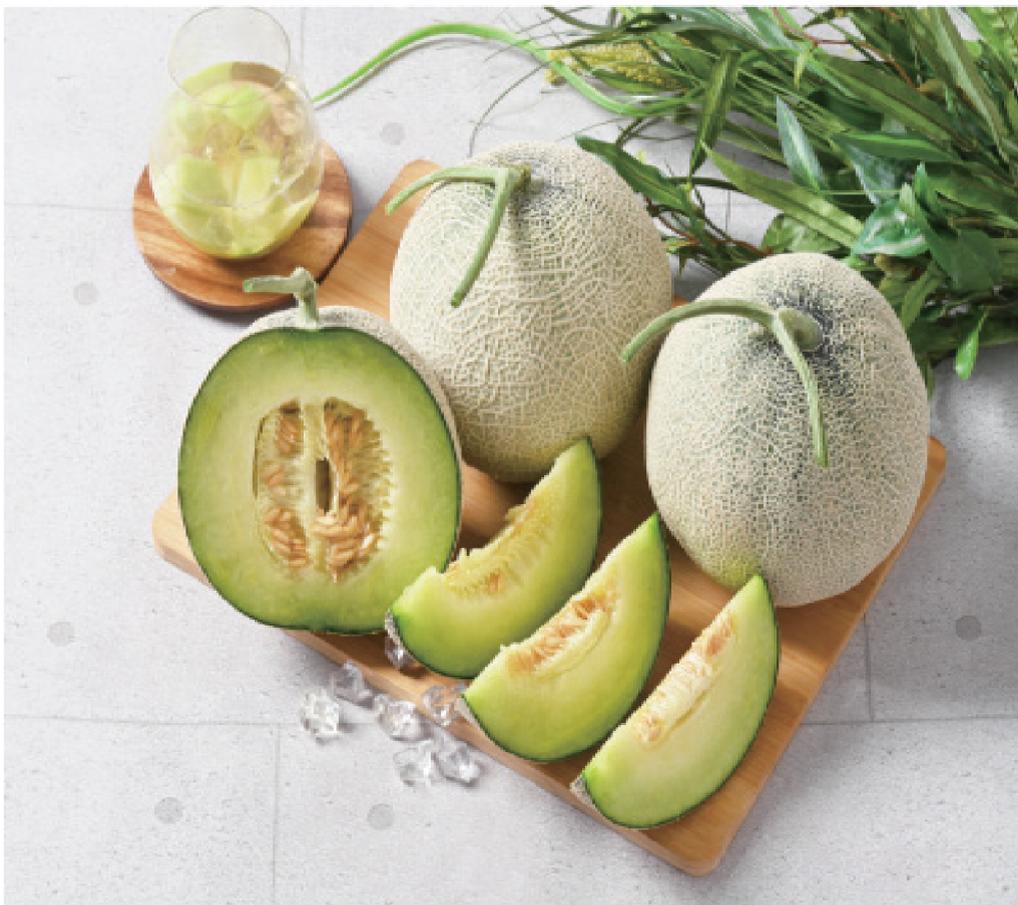
이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적절한 진료받기,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시군 보건소와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오는 8일까지 2주간을 집중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설 명절에는 이동인구가 늘고 가족, 친구 간 만남이 증가하는 시기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 가족과 만나기 전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며 "연휴 기간에도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해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NAJU 나주시 NAJU CITY

경북도의회, 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나서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상북도의 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정립에 활용 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기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 용역 결과 공공기관 절수설비 미설치 89%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

시민사회의 물 절약 정책에 대한 관심과 동참 요청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등의 보급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물 절약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UN 2023년 물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물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적인 물 위기에 스스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점과 국가 물 관리 정책의 주인권이 수자원 개발과 확보 등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물 낭비 요인 제거와 물 절약 인프라 확충 등 수요 관리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대구시의 물 절약 정책 추진 실태와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현황을 점검하게 됐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3.56원/m³)이며 연간 약 472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과 생산비용의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년 대구시가 절약하는 예산이 약 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효과를 추정했다.



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구시청 및 구·군청 등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이 물 절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물 절약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UN 2023년 물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물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적인 물 위기에 스스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점과 국가 물 관리 정책의 주인권이 수자원 개발과 확보 등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물 낭비 요인 제거와 물 절약 인프라 확충 등 수요 관리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대구시의 물 절약 정책 추진 실태와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현황을 점검하게 됐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약 80% 수준(생산원가 780.49원/m³, 요금

윤 의원은 2018년 수립된 대구광역시와 구·군의 제3단계 물 수요 관리계획에 따른 절수설비 등 보급 실적(300%가 넘어 당초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와 절수설비 관련 정책이 신속 건물 중심으로만 이행되지 않는지를 우려하며,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신속 및 기숙 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물 절약이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일이며, 기후변화 시대에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대응 가능한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사회가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 "존중하는 환경 조성으로 충남교육 발전시켜야"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 34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 34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주요 업무계획을 매년 반복하기보다, 현안 사업과 최신 관심사를 담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 촉진, 학습 경험 향상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또한 방과 후에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학습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중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충남과학고의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환경개선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또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청취하고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실한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학부모에

편상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

최정근/기자



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안양시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어 다음 날인 31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동안구청 인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30일 안양동 소재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버리마을"을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했다. 위원회는 법인 간부직원, 시 장애인복지과장 등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법인 관장 윤민서 신부의 인사말로 시작해 시설장 이종교 신부로부터 일반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복지현장의 현안과 고충사항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전·교통·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시민들의 안전 도모를 위해 지난 해 12월 준공을 마쳤다.

윤경숙 위원장은 "근로를 하면서 활기찬 작업장 종사자들에게 크게 감명 받았다"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장애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홍보체험관, 관제센터, 견학실, 자율주행 차고지 등을 둘러보며, 시설을 심도있게 점검했다.

김희태/기자

이재현 위원장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양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건물 내부 정비 등 작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해 금년 4월 개소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늘봄학교 추진과정 문제점 지적

"전국 최초 늘봄학교 도입 앞서, 기 구축된 돌봄서비스 연계방안 우선 고민해야"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전국 최초 늘봄학교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 구축된 돌봄서비스를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늘봄학교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시설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수 의원은 "교육청의 발표를 들어보면 가치 '돌봄의 혁명'이라고 느껴지지만, 설명회 현장에 가면 학부모들은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아닌, 교육가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부산시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과가 있었는지, △이번 늘봄학교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되물었다.

박진수 의원은 "교육청의 발표를 들어보면 가치 '돌봄의 혁명'이라고 느껴지지만, 설명회 현장에 가면 학부모들은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아닌, 교육가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부산시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2023년 시범 운영 및 2024년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박진수 의원은 "교육청의 발표를 들어보면 가치 '돌봄의 혁명'이라고 느껴지지만, 설명회 현장에 가면 학부모들은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아닌, 교육가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부산시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모 다함께돌봄센터가 임대료 문제로 폐원하는 것을 언급하며 지자체의 돌봄서비스가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교실도 도약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면시행 계획을 올 하반기로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졸속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교육부의 계획보다도 한 발 더 나가 '이번 1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밝혔다는 것이다.

박진수 의원은 "교육청의 발표를 들어보면 가치 '돌봄의 혁명'이라고 느껴지지만, 설명회 현장에 가면 학부모들은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아닌, 교육가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부산시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한 부패방지·청렴교육 실시



이천시의회가 바람직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하식 의장은 "금번 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형 청렴교육을 활성화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천시의회는 청렴 실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5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참여해 청렴의회로 도약하기 위한 역할을 기했다.

이번 강연은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입법 취지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금일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청렴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 등 스스로를 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당 방문한 경기도 김동연, “선도지구 지정 위해 최선”

김동연 지사, 5일 분당 신도시 내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을 방문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 현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은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공 30년이 넘는 푸른마을 신성아파트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에는 여러 단지가 노후화됐다. 특히 지난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도지구·교통망·공사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병욱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국토부에서 만들 기본방침을 만들 때도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 정비 예정구역"이라며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둘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1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이 논의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

회인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 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며 "입법공정회 개최, 집행부 설득을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15

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문화, 이민정책, 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참석

"차량 지원으로 기동성 확보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일 고양시 삼송동종합복지회관, 사무엘장애인보호작업장 2곳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서 '차량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제공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신속·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경기도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50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또한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시설·단체 차량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50대(승합차 24대, 경차 26대)의 차량의 조달청 가격 기준 차량구입비 및 렉핑

비를 지원한다. 이인애 의원은 "뜻깊은 차량 전달식에 참석하여 기쁘다"면서, "차량 지원에 따른 기동성 확보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특히 차량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보호고용 및 고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양시 삼송동종합복지회관 전달식에는 고양시삼송동종합복지회관 이경은 관장,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이 참석했으며, 사무엘장애인보호작업장 전달식에는 사무엘장애인보호작업장 김재희 시설장,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이 함께 했다. 이날 지원한 차량은 지역사회에서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이동지원, 이용자 가정·유관기관

방문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3회 임시회에 앞서 2월 5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책임지게 된다"면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및 접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 사례와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을, 경기도의회에서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운영 중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특별위원회 그리고 현장 자문위원회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는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회에는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대한민국의 힘, 울진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24. 2.22(목) ~ 25(일) 울진군 후포항 일원

맛있는 대게 여행, 후포항에서 모이자~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육계발전위원회

후원 | 한수원 | 한울원자력본부

여주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 소통과 토론의 업무보고 가져

여주 관광산업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주제로 협업 토론회

여주시는 기업 유치와 각종 사회적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이는 최근 여주시가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들이 여러 부서간에 걸쳐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협업과 소통이 필요함에 따라 부시장(부시장 조정아)은 지난 2일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관광지인 강천섬 힐링센터에서 관광산업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란 주제로 12개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된 주요 12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 관광도시 원년의 해 비전 선포 ▲ 출렁다리 설치 및 연계사업 현황 ▲ 강천섬 캠핑장 조성,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편의시설 조성사업 ▲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 ▲ 2024년 여주곡나라축제 ▲ 전통시장 및 먹자골목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사업 추진 ▲ 여주시 활성화 민간투자 용역 추진 ▲ 오학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며 주요 주제인 강천섬 명소화사업에 대

추진한다.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여주시 부시장(부시장 조정아)은 지난 2일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관광지인 강천섬 힐링센터에서 관광산업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란 주제로 12개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된 주요 12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 관광도시 원년의 해 비전 선포 ▲ 출렁다리 설치 및 연계사업 현황 ▲ 강천섬 캠핑장 조성,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편의시설 조성사업 ▲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 ▲ 2024년 여주곡나라축제 ▲ 전통시장 및 먹자골목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사업 추진 ▲ 여주시 활성화 민간투자 용역 추진 ▲ 오학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며 주요 주제인 강천섬 명소화사업에 대

하여는 주차장 위치, 진출입로 개선, 시민불편 최소화, 고사목 제거, 은행나무 추가 식재, 변화하는 캠핑장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토론했으며 전통시장 및 먹자골목 활성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세계 사이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됐으며 골프장 이용객, 캠핑장 이용객에 대한 여주쿠폰 발행과 상권유입정책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오학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과 관련해서는 조성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과 다수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 조성, 이용료, 주차장 운영, 타시 벤치마킹 추진 후 검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보고 및 토론회에 참석한 이충

우 여주시장은 이러한 현장을 찾아가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토론이 좀 더 확대되어 전문가와 시민 등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제를 엮어서 관련된 부서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업을 통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했으며 토론을 진행한 부시장(부시장 조정아)은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과 팀장이 좀 더 확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와 편안한 토론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전달했으며 토론에 나온 의견들에 대하여 부서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 반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주제인 농업경쟁력 제고 및 기반시설 확충 12개사업에 대한 토론은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설 맞아 할인율 6%→10%상향

이천시는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할인율 일시 상향은 설 명절 대목에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 할인은 2월 한 달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인당 할인가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으로 기존 운영 지침과 동일하다.

지역화폐 발급은 만 14세 이상이면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한 뒤 충전이 가능하다.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는 지역 내 음식점, 학원, 병원 등 8,7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등록된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제공으로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산·학·연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특구지정시 세제감면, 정부 R&D예산 지원 등 혜택

성남시가 제 1,2,3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 일원의 시스템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섰다.

시는 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및 바이오 관련 10개 산·학·연 기관과 '성남 시스템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육성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대학, 연구소 등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기반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연구개발 특구로 육성하는 제도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과 지역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스템반도체 강소특구 지정은 판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R&D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촉진하는 성남시만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관 간 견고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강소특구를 지정받아 성남시와 시스템반도체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가 성남 시스템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총괄 추진하며 ▲가천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술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KAIST, 성균관대학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반도체공학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6개 기관은 반도체 및 바이오 전문기관으로서 특구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적인 교류 및 협력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시정연구원은 강소특구의 지정 및 육성지원을 각각 맡는다.

현재 전국에서 14개 지역이 ICT, 바이오, 헬스 분야 등의 특화분야에서 강소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분야로는 아직 지정된 특구가 없다. 성남시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가천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2개 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해 판교1·2·3 테크노밸리 및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등을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술사업화를 위한 배후공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판교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으로 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국내 팹리스 기업 중 40%가 소재한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핵심거점으로서의 최적지"라며 "강소특구 지정을 통해 R&D-사업화-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202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In SUWON',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즐겁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전국의 학생들이 창의력을 겨루는 '2024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In SUWON'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수원시와 (사)한국학교발명협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In SUWON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초·중·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도전과제와 즉석과제를 수행했다. 심사를 거쳐 금상, 은상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세계창의력 올림피아드 결선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개최식은 수원시 청소년들의 댄스,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했다. 체험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처럼 즐겁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오늘 이 대회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열정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도록 수원시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

신선·동결 간 체외수정 간 칸막이 폐지...4월부터는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

용인특례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

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시술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도의원과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2일 도의원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발전을 위한 결속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유영두·임창휘·오창준·김선영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역점 추진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방 시장은 "지난해 모개미천 개선 복구사업 등 주요 사업에 1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통해 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광주시간 교류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범상/기자



춤으로 하나되는 '안양춤축제'...3년 연속 경기관광축제 선정 지원금 7천만원 확보

최대호 시장 "안양춤축제 통해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도시 만들 것"

안양시민축제의 새 이름인 '안양춤축제'가 '2024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됐다.

안양시는 2022년 안양시민축제 '우선춤'과 2023년 및 2024년 '안양춤축제'까지 춤을 소재로 화합의 의미를 담은 안양시 축제가 우수한 기획력으로 3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해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중 우수하고, 역량이 있는 축제를 경기관광축제로 선정해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번 선정으로 2024년 안양춤축제 보조금 7천만원을 받는다. 안양춤축제는 안양시민이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준비하는 축제이자,

춤 콘텐트로 하나되는 시민참여형 관광축제이다.

시는 지난해 축제 공식 명칭을 안양시민축제에서 안양춤축제로 변경했고, 지난해 9월 20~24일까지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댄스경연, 랜덤플레이댄스, 댄스버스킹(거리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일간 펼쳐진 안양춤축제로 17만2천여명이 방문했다.

최대호 안양 시장은 "안양춤축제는 독창성과 우수한 기획력으로 2021~2024년까지 대한민국축제큰잔치대상도 연속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안양춤축제를 통해 활력 넘치는 춤의 도시, 문화예술도시 안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 2024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점검 시행 나서

화성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선물 세트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과대포장과 관련해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의 과다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어르신 여권민원 도우미 시범사업 실시

60세 이상 어르신, 생애 최초 신청자 대상 여권 발급 도와

인천광역시시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만원인을 대상으로 서류작성 등 신청에서 발급까지 전 과정 도움을 주는 어르신 여권민원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여권 발급 건수는 코로나19 정상화 이후 2023년 한 해에만 341,582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45,260건 보다 40%로 증가했고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 3년간 총 222,375건 보다 53%가 급증했다.

어르신 여권민원 도우미 시범사업은 원스톱 여권 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필요 서류·절차 및 수령 방법·민원실 이용 만족도 설문지 작성 안내 등 인천형 대시민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우미 인력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회서비스직 공공기관 행정업무지원 신청 어르신 3인으로 구성돼 1일 3교대 3시간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여권을 발급받는 시민들이 서류 작성의 도움을 받아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낯선 발급 절차를 안내 받아 여권업무에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일자리 인력을 확보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시민 만족도 및 근로자 만족도 등에 대한 세부적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하남시, (가칭)감일백제박물관 건축설계공모 최종당선작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주)별터 건축사사무소]

하남시의 새로운 문화시설인 (가칭) 감일백제박물관의 건축설계공모가 확정되어 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7회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별터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음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건축설계를 거쳐 2025년 건축공사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칭)감일백제박물관은 감일역사공

원(하남시 감이동 444) 부지 내 연면적 2,516㎡,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상 1층에는 주차공간과 유적전시실, 지상2층에는 개방형 수장시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주민을 위한 복합전시공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사람과 사람, 오래됨과 새로움을 잇는 공간으로 건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시민을 위한 박물관'으로서 편의시설과 복합문화시설로서 발돋움하기를 당부하며, 아울러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

한 체험전시 공간도 강조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과 실무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폐교된 서남대가 새롭게 피어납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3개 학부 신설



한국어 학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

피어나다 남원

전남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취약지 입산 통제 강화

5월 15일까지...허가 없이 출입하면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평년과 비슷한 강수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약지 중심으로 감시원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도내 산림면적 68만 6천852ha의 약 21%인 14만 1천692ha가 입산 통제되고, 전체 등산로 3천600km의 약 20%인 708km가 폐쇄된다.

통제된 등산로에 허가 없이 출입하면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면서 산행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세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 정보는 산림청 연계 누리집(hiking.kworks.co.kr)과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동시다발 대형 산불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봄철 산행을 계획하는 경우 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화기·인화·발화물질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54건 952ha)가 발생했으나 민·관·군 공조체계를 통한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설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특별점검

순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원, 관광지, 상가밀집지역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및 시설 안전 점검,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방역실태 점검, 편의용품 비치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적외선 및 열화상 복합 탐지기,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각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설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순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원, 관광지, 상가밀집지역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및 시설 안전 점검,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방역실태 점검, 편의용품 비치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적외선 및 열화상 복합 탐지기,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각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설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설명절 맞이 빈틈없이 살피는 생생현장투어 추진

공공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등 특별점검 실시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마을 및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1월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소통실 120만원봉사대에서 운영 중인 '빈틈없이 살피는 생생현장투어' 특별점검반을 구성, 자전거·차량·도보 등을 활용하여 주요 공공시설물·관광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여객터미널 등의 불법 게시물, 쓰레기 적치물, 통행불편사항, 도로 위험요인 등 시민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20만원봉사대에서 즉시 처리

하고, 장비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은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알려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120만원봉사대 생생현장투어를 통해 도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899건의 민원처리를 실시한 바 있다.

김민주 시민소통실장은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 주요 공공시설물 및 도로·교통·환경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현장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2024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가져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전년 대비 약 9% 증가

강진군은 지난 1일, 군동면, 신전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은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보육시설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운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어디서든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을 강조했다.

2부 교육에서는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어르신들에게 빈번히 발생되는 낙상사고 등 안전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 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대상자 2,220명을 모집한다. 사업량도 2,035명에서 2,220명으로 185명이 증가해, 약 9%가 늘었다.

또한 군은 4차 산업혁명과 접목되는 스마트 경로당 관리와 주택 소규모 수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사회관계 속에서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강진군은 지난 1일, 군동면, 신전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은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보육시설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운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어디서든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을 강조했다.

2부 교육에서는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어르신들에게 빈번히 발생되는 낙상사고 등 안전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 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대상자 2,220명을 모집한다. 사업량도 2,035명에서 2,220명으로 185명이 증가해, 약 9%가 늘었다.

또한 군은 4차 산업혁명과 접목되는 스마트 경로당 관리와 주택 소규모 수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사회관계 속에서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나주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연구용역' 완료

현황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 방향 도출

전라남도 나주시가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수한 '나주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해당 용역은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 파악 및 요구 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과업 내용은 나주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현황 조사, 여성 커뮤니티 현황, 경제·사회참여 욕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진단,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 연계 방안 도출 등이다.

다양한 의견·자료 수집을 위해 빗가람동, 남평읍, 원도심, 영산포 등 권역을 나눠 30~59세 여성 39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또 여성정책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를 통해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연령별로 30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21.9%), 40대는 '가사 및 자녀 양육, 자녀교육'(20%),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 마련, 경제사회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공유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나주시는 연구용역 최종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동공간 마련, 취·창업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지원 및 일·가정 양립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도 올해 추진한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취미생활이 소득창출,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만/기자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실시

업체당 3,000만원 한도, 연 3% 이자액...2년간 지원

진도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연 3%의 이자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기준(재산세, 지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입자(배우자포함), 타 사업으로 이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진도농협 ▲진도군수협 ▲진도군산림조합 ▲진도군새마을금고 등 5개소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차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간담회 개최로 축산농가와 소통

'함평 한우 이야기' 두 번째 만남 가져



전남 함평군은 지난 25일 우량 암소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함평축협 회의실에서 '2024년 우량암소 사육농가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시책인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사업'을 비롯하여 2024년에 시행하는 한우육성 분야 사업들에 대해 전년도와 달라진 점 등을 홍보하고 한우 개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우량암소 사육 농가를 비롯하여 함평축협,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에서 참석하여 함평군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우 혈통 개량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작년 12월 말 기준 함평군에서 총축

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 개체수는 93두이며 이번 우량 암소 형질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우량 암소 사육 농가 개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수정된 이식사업으로 생산된 혈통 송아지에 대해 지역 축산 농가만 경매에 참여하게 하는 등 관내 유통을 권장하고,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관내 분양하는 농가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할 방침"이라며,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축산 농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평군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하버드 의대 나노메디슨연구소와 협업

바이오 산업 집적지 '아시아 보스턴' 꿈에 한발짝 성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바이오분야 영커기업들과 잇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외국의 유명 혁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바이오산업의 집적지 조성을 위한 외연을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공학·나노메디슨연구소(소장 최학수)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MGH는 지난 1811년 설립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의료기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도내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에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북대학교 송철규 연구부총장과,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병엽 소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이 참석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자치도로서는 도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아시아 보스턴' 꿈에 한발짝 다가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대, 원광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을 통해 연계 인재 교류 및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며, 글로벌 선도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및 정책 교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 병원 중심의 국제 공동 임상연구 및 맞춤형 정밀의료 연구협력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날 협약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자치도로서는 도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아시아 보스턴' 꿈에 한발짝 다가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대, 원광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을 통해 연계 인재 교류 및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며, 글로벌 선도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및 정책 교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 병원 중심의 국제 공동 임상연구 및 맞춤형 정밀의료 연구협력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날 협약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자치도로서는 도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아시아 보스턴' 꿈에 한발짝 다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도내 학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해 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라며, "선진 기술과 연구방법을 배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12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기계생물학연구실에 방문해 전북도와 협력체계 구상을 논의했으며, 향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와 전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표준화(글로벌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장흥군, 개별공시지가 24만 3,708필지 산정

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16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흥군은 사유지 164,440필지와 국공유지 79,268필지를 포함한 243,708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로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국토부장관이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장흥군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08%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대부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해남군, 설 장바구니 물가부담 줄인다

해남군은 설 명절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군은 오는 8일까지 설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직접적인 설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분야별 점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우선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3종인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는 올해도 동결한다.

설명절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1인당 할인 한도액도 100만원으로 늘려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지역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 농수특산물 및 가공

식품 1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임업업체와 군 지원을 더해 최대 46%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해남군이 자랑하는 농수특산물과 가공품으로 물가 부담 없는 설명절 선물을 마련할 수 있다.

설을 앞두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 지도, 단속한다. 물가모니터링원, 유관기관과 물가안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담합, 계량 위반 등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 주요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수시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경기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가운데, 공직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최갑문/기자

완도군, 설 연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합동 점검 나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

완도군은 군민과 귀성객들이 설 명절을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점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과 문화·판매시설, 전통시장, 요양시설, 터미널 등 화재 취약시설 43개소이다.

지난 29일에는 김현철 부군수와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입주민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 및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보완 조치를 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현철 부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신안군 '부엉이 곳간', 국토 최서남단 흑산도에서 새공예작품 전시 개최

신안새공예박물관, 부와 행운의 상징 부엉이 공예품 등 1,100여 점 공개

신안군은 국제적인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조성된 새공예박물관에서 오는 3월 30일까지 '부엉이 곳간'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의 최서남단에 있는 신안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며, 이동 중 지친 체력 보충을 위해 쉬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내에 기록된 60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20여 종이 흑산도 권역에서 관찰될 정도로 철새들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국가 간 이동하는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새(조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새공예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번 기획전은 '부엉이 곳간'으로 사람에게 친숙한 부엉이를 주제로 개최한다.

부엉이는 예로부터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데, 먹이를 닷치는 대로 물어와 쌓아두는 습성으로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재물과 행운이 샘솟는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부엉이와 관련된 장식품을 지인에게 선물한다.

이런 부엉이 습성으로 '부엉이살림', '부엉이 곳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기획전은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등 20개국에서 수집된 공예품 70점과 국내 도자 공예품 13점 등 총 83점의 부엉이 공예품을 3월 30일까지 전시한다.

새공예박물관에 전시된 공예품은 10여 년 전부터 신안군청 직원들이 국내·외에서 직접 수집한 작품으로 현재 27개국에서 수집한 공예품 1,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작품성이 좋고, 이야기가 있는 공예품 50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외부에 조성된 새조각공원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조각 100여 점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0년간 많은 직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새공예박물관이 현재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라며, "기획전을 통해 새공예박물관을 알리고, 방문하는 모든 분이 부엉이 기운을 받아 행복과 행운을 함께 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총력!

국내·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파격 인센티브 지원

목포시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목포시에 국내 관광객을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1월 31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관내 식당 1식 ▲관내 숙박 1일 ▲유료관광지 1개소를 방문할 경우 1인당 최대 1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내식당 1식 ▲관내 숙박 1일 ▲유료관광지 2개소 입장 ▲사후면세점 방문할 경우 1인당 최대 6만 원을 지원한다.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는 1인당 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우 국내·외 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우 종합여행업

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 회복 추세에 따라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해 11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여행그룹인 중청려(中青旅)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는 현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관광공사 및 전남관광재단과 연계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사 팸투어 ▲전남관광설명회 참가



▲한국여행협회(GATA) 한-대만 관광교류회의 참가 ▲K-관광박람회 참여 등 상품설명과 상담을 진행하는 세일즈 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천만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이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우리시의 우수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산림600 산불이 없는 보성군을 만들자!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도록 예방 홍보 및 계도,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대응 태세를 갖춘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2대를 구입하고, 임차 행기를 지난 1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약산자연휴양림 내 계류장에 배치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1명을 선발해 전진 배치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임업 부산물의 불법소각 등 소각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림산업과에서는 소형파쇄기

를 무상 임대하고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군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구례소방서 개칭...전남 모든 시군 소방안전망 갖춰

2만4천여 군민 안전지킴이 힘찬 출발, 현장 신속대응 기대

전라남도 구례소방서가 30일 개칭식을 갖고 구례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돼 촘촘한 소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이날 개칭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이동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례소방서는 전남지역 22번째 소방

서로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약 89억 원을 들여 5천791㎡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로 구성됐으며, 1개 119안전센터(구례)와 2개 구조대(구례·산악)를 운영 중이다. 총 107명의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 23대가 배치돼 2만 4천여 구례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문을 열어 대단히 든든하다"며 "구례소방서가 군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안전지킴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진 구례소방서장은 "오랜 염원이던 소방서가 개칭됐다"며 "신속한 재난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으로 더 안전한 구례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 화상병 완전 차단 시스템 가동!

4월 30일까지 사전예방 중점기간, 궤양제거, 정밀예찰, 약제방제, 모의 훈련 실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4월 30일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관리제 운영, 전원원 제거, 약제 방제 등 화상병 완전 차단 시스템을 가동해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평균기온은 2.4°C로 평년 1.3°C보다 1.1°C 높은 기온을 형성함으로써 화상 병균이 더 많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 봄 이후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개화기에 화분매개곤충 등에 의한 화상병 확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검역본부-도-시군 신속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2월 중순부터 집중 예찰과 전원원 제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작년 발생시군(안동, 봉화)은 전담관리제 운영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사과주산지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예찰반을 편성해 궤양 등 의심주 발견 시 사전 제거를 통해 화상병 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 사과주산시군(9시군)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도내 17개 시군에 설치된 화상병 예



측정보시스템을 통해 꽃 감염 위험과 병징 출현 예상일, 방제 적기를 농가에 제공하고 사전 약제 방제를 위해 확보한 예산 140억 6천만 원으로 총 4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추진한다.

화상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화상병 모의 상황 대

응 훈련을 하고 공격방제, 손실보상 표준운영(SOP)을 정비해 신속한 방제와 손실보상 처리 기간 단축으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상북도의 사과 재배면적은 20,430ha로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밀식과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상병 사전예방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밀한 예찰 활동을 통해 화상병의 시작점이 되는 겨울철 궤양 조사와 제거부터 철저히 이뤄져 도내에 확산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사건·사고 발생 없는 설 명절 대비에 총력!"

설 명절 산불예방 및 공공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월 5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가오는 4일간의 설 연휴에 산불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재난안전실장을 중심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해 설 연휴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재정관리' 보고 후, "지속되는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빈틈없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도시주택국의 '설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정비' 보고 후, "명절이 다가오니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집중 점검해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도시관리본부의 '설 연휴 대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보고 후, "설 연휴 기간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지와 함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며, "특히, 앞산공원·두류공원(테마파크)·팔공산 케이블카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환경수자원국의 '설 명절 환경분야 대책 추진' 보고 후, "명절에 성묘를 많이 하는데, 이때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며, "환경수자원국과 소방안전본부 업무 협력을 통해 설 연휴에 유의해 입산객들에 대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교통국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보고를 받은 후에는 지난해 11월 경제성 분석 결과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발표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해 시공행 개황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공설단의 'TK신공항 SPC 총력설립' 보고 후, "부동산 경기 폭락, PF대출 부실 등으로 TK신공항 SPC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총선 전 신속한 SPC 구성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곧 4일간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한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선포식' 개최

2.6. 14:00 밀락더마켓에서 개최...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하운수 교육감, 시의원, 구청장, 학계, 경제 기업 단체 대표 및 일반 시민 등 300여 명 참석

부산시는 6일 오후 2시 밀락더마켓에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영어하기 편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를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하운수 교육감, 시의원, 구청장, 학계, 경제 기업 단체 대표,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선포식은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과 전략 발표 ▲영어하기 편한 도시 홍보대사 위촉식 ▲비전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비전 아래 ▲우리아이 영어교육 걱정없는 도시 ▲글로벌 취창업이 성공하는 도시 ▲외국인도 관광하기 편리한 도시

▲살기좋은 글로벌 도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의 5대 전략 방향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룹 솔리드 출신 가수 김조한 씨를 '영어하기 편한 도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홍보대사 김조한 씨는 한국 R&B 열풍의 주인공인 그룹 '솔리드'의 메인보컬 출신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뛰어난 영어 실력과 영어 친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됐다.

선포식에 이어, 영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예능을 결합한 부산영어방송(BeFM 90.5MHz)의 퇴근길 라디오 신규 영어프로그램 'All-Star English' 제작발표회도 열린다.

제작발표회에는 홍보대사 김조한을 비롯하여 UN기념공원 홍보대사 캠페인 에이스, 시 소풍 캐릭터 '부기' 그리고 부산영어방송의 다재다능한 신민수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각을 다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소통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부산에서 나고, 자라고, 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을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티브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군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도약

2024년 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전략 선정

청송군은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청송"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핵심전략은 아래와 같다.

▲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및 안보위협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활동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축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제고

▲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및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안전보호를 운용하여 불의의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장항목에 해당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적 안보환경 가운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과 을지연습의 내실화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철저한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외 그동안 이시기후로만 여겨졌던 극심한 폭우, 폭설, 한파, 폭염 등이 이제

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울인다.

우선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여천(파천면)·함강(진보면)·열음골(주왕산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에 5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법수천(주왕산면)·감곡천(파천면) 2개 지구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이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으로 총 32개소에 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청송을 월막2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무료버스와 천원택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료 증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전문단지 조성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4억9

천만원, 톱밥·퇴비부숙제 구입, 악취저감장치지원 등의 깨끗한 축산환경정착사업에 6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축사관리용 CCTV, 축사환기시설지원 및 우수한 품질의 한우 개량을 위한 정액보관용 질소통 등을 지원하여 160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방역기자재 및 예방약품 구입,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 등에 8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건전한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비(100마리), 마당개 중성화수술비(1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100마리) 등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해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2024년 甲辰年 을 한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미래의 유도 국가대표들 영양군 집결!!!

'2024년 영양군 첫 전지훈련 성공리 마무리'

경북 영양군은 지난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유도 전지훈련을 무사히 종료했다.

'24년의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은 미래의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품은 아이들의 당찬 포부와 함께 시작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와 추위 속에서도 체육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훈련은 전국 유도부의 합동훈련으로 진행됐으며,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대로 끌어

올려 각종 국내·외 대회를 대비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동절기 전지훈련은 전국 55개의 학교에서 836명의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참여했고 이는 4억 원의 지역 경제효과를 일으켰다.

해마다 참가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영양군 유도 전지훈련은 주최 측인 영양군 체육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영양을 찾는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선수들

을 "영양군은 전지훈련시설이 훌륭할 뿐 아니라 선수단의 활동에 편의를 위한 협력과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추운 날씨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번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기쁘다"라며 "이번 전지훈련이 어린 선수들에게 한 해 좋은 성적을 낼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설 명절 대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상북도는 설 연휴에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설 명절 대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북도 전역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어 귀성객과 차량이동이 많은 설을 맞아 차단방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설 연휴 전후(2.8., 2.13.)에는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가금·돼지농장, 축산관계 시설과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 및 인근도로에 가용 방역차량(137대)을 총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연휴기간(2.9.~2.12.)에 도 자체적으로 점검반(15명)을 편성하여 21개 시군(울릉제외) 거점소독시설 25개소에 대해 축산차량 소독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리고, 귀성객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등에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SMS문자 등으로 축산시설 소독 등 방역요령과 농장 방문 귀성객의 행동요령 등을 알린다.

이외에도 귀성객의 축산농가·철새도래지·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사람 및 차량에 대해서는 방문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신고 시 신속한 방역조

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별 상황실을 설 연휴 중 지속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대비 연휴 기간 살처분 동원 인력·장비 등을 사전 확보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설 명절을 전후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귀성객은 축산 농가와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민원 서비스 향상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인허가 개선 방안 논의

영주시는 5일 시청강당에서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2024 인허가 대행업체(용역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토목(측량)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부패척결 및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동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원스톱 민원서비스' 향상 대책 교육과 이에 대한 토론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분야별 건축, 개발행위, 농·산지전용, 도로점용 허가 등 분야별 담당팀장이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및 다양한 인허가 민원처리 사례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행업체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와 복잡

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고객 불만요인과 인허가 기간 단축 장애요인 등에 대해 관계자 간 상호 토의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시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대행업체에는 건축관련 자치법규집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점검으로 내실있는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우수 설계업체를 표창하는 등 인허가 대행업체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인허가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주시,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와 농·특산물 수출 MOU 체결

경주시, 신선농산물 베트남 수출 확대 추진 주력키로

경주시가 베트남 현지 대형 유통업체 'K-마켓'과 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종태 경주시 농업유통과장, 고상구 K-마켓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서에는 경주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마켓은 베트남 현지에 1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서비스 등으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한국 식료품을 공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다.

경주시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특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봉화군, 설 명절 장보기는 '정'과 '담'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

봉화군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내수촉진을 위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2.1.~8일까지 기간으로 정해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행사로 군청 공직자가 동참하여 설제수용품, 성수품 구매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보기 캠페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5일 장날인, 4일에는 억지출양시장에서 유관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서민경제 현황 애로사항 청취와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을 펼쳤으며, 7일에는 봉화상설시장에서 진행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둔화로 지역상경기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정이 넘치고, '정'과 '담'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시장 활성화와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구천초 배우고 탐구하고 즐거운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지원 특별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

구천초등학교는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지원을 받아 지리적 소외지역의 소규모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배우고, 탐구하고, 즐기는'이라는 '배탐즐'이라는 명칭으로 준비된 이번 특별한 겨울방학프로그램은 방학기간 3주 동안 매일 4차시로 운영되어 부족한 과목을 복습하는 배움수업과, 피지컬 컴퓨팅과 3D모델링 기술을 익히는 탐구수업 그리고 전과정을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요리를 만드는 즐거운 체험중심 수업으로 구성되어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 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인 구천초등학교의 2,3,5,6학년 학생 모두가 참가하여 기초학력도 증진하고 미래사회와 직결된 과학기술 주제의 탐구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영어로 요리를 만드는 즐거운 체험을 가질 수 있어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자칫 무료해 질 수 있는 긴 겨울방학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

2023학년도 겨울방학 '배탐즐 겨울 프로그램'에 참가한 구천초 6학년 S학생은 "방학 때 매일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공부도 하고, SW프로그램도 배우고 요리도 하며 영어를 배우니 이번 방학이 아주 보람되고 특별 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천초 정찬명 교장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의 지원이 있어 지리적으로 소외된 농촌 학생들에게 특별한 겨울방학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기획하고 운영하여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삶을



정금자/기자

예천군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배수로 관리' 홍보

주민 홍보를 통한 도시 침수 예방 및 원활한 하수처리로 환경 보전

예천군은 6일 예천읍 상설시장 일원에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배수로 및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직원들과 (주)에코비트워터 및 푸른예천환경(주),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직원들이 함께 했으며, 전단지 등을 주민과 점포에 배포하며 물티슈 등 오물의 하수도 배출 방지와 배수로 및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물티슈, 여성용품, 동식물성 기름 등이 하수도로 배출될 경우, 하수관로가 막혀 역류 및 악취가 발생하고,

하수처리시설 설비가 망가져 하수처리에 큰 어려움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고, 배수로 및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토사가 쌓일 경우에도 하천 오염과 시가지 침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맑은물사업소 이병일 소장은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과 배수로 및 빗물받이 청결 실천은 환경 보전과 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민 환경 보전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방문

안동·예천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문 전달

안동시 권기창 시장과 안동시의원, 안동시 이통장연합회 및 시민단체 회원 60여 명은 2월 6일(화) 1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방문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단체회원들은 기존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에 대해 안동·예천 선거구를 존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요구는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어져,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행정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경북도청을 함께 공동유치한 안동·예천 선거구의 상황을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과 예천은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와 함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의 상생·화합 발전을 위해 시·군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안동·예천선거구를 단일화시켰다며,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안동시의원들도 "예천이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편입되면 경북을 절반으로 가르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한다"라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10여 년간 안동과 예천이 협력하여 경북도청 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 건설, 경상북도 행정의 중심도시이자 경북북부권 거

점도시로의 성장을 향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면서 "안동·예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은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예천통합추진위 등 시민단체에서도 "안동과 예천은 신도시로 함께 묶여 있어 선거구가 분리되면 지금껏 상생·화합한 노력이 희석되며 경북도청 신도시의 북부권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변모에 지장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동과 예천의 이원화된 행정구역으로 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선거구가 분리되면 양 시군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지역발전이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재해걱정 독! 농작물 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사과·배·단감·뽕은감 1.29일부터 2.29일까지 농·축협 가입 가능

경상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NH농협 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품목농협에서 '202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우선, 사과·배·단감·뽕은감은 29일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참외 등)과 버섯 4종(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품목은 재배시기에 맞춰 별도로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노지수박, 블루베리, 무, 파, 밀, 쌀, 시금치, 보리, 시설감자, 당근 총 10개 품목이 늘어난 62개 품목(전국 73개)이 가입 대상이며 ▲사과대추, 고령지배추는 전국 가입 가능 ▲사과·배·단감·뽕은감의 착과수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향상되고 ▲대파, 당근 등 일부 품목에 재정식·재파종 특약이 신설됐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가

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신청 할 수 있으며, 경북도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내면 된다.

경상북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2010년에 비해 가입 농가는 5.5배, 지원 예산은 6배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례 없는 집중호우, 저온 피해에도 4만 5천농가가 2,87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농가들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수준 향상, 가입 대상 보상 품목 확대, 보험 가입금액 산정 방식 개선 등 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보험 가입 확대와 가입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가지고 품목별 시기에 맞게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으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북 농업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4년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청송군은 지난달 26일 주왕산국립공원 상의주차장 일원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청송군, 청송소방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탐방객들에게 산림 내 소각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금지 등을 홍보하고 공원 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청송군은 '산불예방 총력대응'을 위해 5월 19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별 단계에 맞춰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산림이 83% 정도로 이루어진 명품 산림도

시인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이제는 지방시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특별초청 강의 실시

영양군은 2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한 특별 초청 강의를 실시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각종 균형발전 정책 및 지방분권 과제 추진 등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양군 공직자에게 지방자치시대 지방직 공무원의

주도적인 역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과 지방시대구현에 대해 열띤 강연을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 소득, 일자리 등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에 대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지방분권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공모선정

안정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월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영시는 3월에 사업공고를 통해 기업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원한도는 월 임차료의 80%이내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근무기간 5년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기준으로 입사6개월 미만 신규채용자 20%이상)로, 나머지 임차료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에서 부담해야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기업의 신규고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 수주량이 늘어 나고 있어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부산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위해 관계부처 전체 협의 실시

박형준 시장의 여·야 핵심인사, 관계부처 장관 면담 이어 이준승 행정부시장의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 차관 등 고위급 인사 만나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준승 행정부시장의 지난 2일과 5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31일과 1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이날 박 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국토부 등 특별법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이 부시장은 방문은 박 시장의 국회 방문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 협조의 성과를 얻어 낸 가운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 심의 가능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후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차원의 협의에 더욱 촘촘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이 부시장과 동행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부처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는 균형발전과 부산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까지 발 벗고 함께 나선 것이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행안부는 차관(고기동)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국회 2월 임시회 상임위에 특별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회 차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 경기부양에 업무 집중 지시

2월 정례회 통해 추극대화대거체제 부양책 강조

김광열 영덕군수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먼저 김 군수는 조직개편과 연초 업무보고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눈고 뜰 새 없이 고된 한 달을 보낸 직원들을 격려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군수는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대 목표로 인식되는 만큼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발주, 신속 집행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군수는 관내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춘계 중등 축구대회'에 110개 팀 4,500여 명의 선수단이 몰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회를 끝까지 잘 매조지고

추가적인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라고 독려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된 영덕대거체제의 명성을 이어가 전국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지역대표 특산물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탄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광열 영덕군수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일이 모두 군민의 삶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에서 재가 가장 앞에서 비바람을 맞고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공무에 임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문화/기자



대구시, 디지털 조직병리 슬라이드 스캔 서비스 개시

조직병리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 평가 및 AI 개발에 도움 기대

케이메디허브가 전임상 연구에서 필수적인 조직병리(Histopathology) 분석을 위한 디지털 조직병리 슬라이드 스캔 서비스를 개시한다.

디지털 병리(Digital Pathology)는 스캐너를 사용하여 조직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고 이

를 병리 진단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원격 병리, 병리 기반 인공지능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 조직병리 슬라이드 스캐너 장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조직병리 슬라이드 제작 및 판독, 임상병리 분석 서비스와 연계하여 고

도화된 전임상 병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담당부서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으로 한국수의진단전문가, 한국독성병리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박사급 수의사 인력들이 병리 판독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보다 전문

적인 전임상 병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 조직병리 슬라이드 스캐너 도입과 함께 고도화된 전임상 병리 서비스를 지원해 의료제품 개발 및 전임상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현장 점검 철저”지시

관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야탑동 임시종합터미널에 난방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특히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설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안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에서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2.8~2.12. 5일간) 중, 임시터미널에 난방시설 5대를 설치하고 보조 의자 30개 비치해 운영할 예정

이다. 또한 기존 6명의 안내요원을 7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물가 조사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축산물 판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가장한 모란 제2공영주차장이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규모는 적절한지 철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

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어떤 것이고, 중대재해시 경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평상시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지 등을 알려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나 교육의 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광진구, 설 종합대책 마련

7일~13일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교통·안전·의료 등 8대 분야 중점 추진

광진구가 '2024년 설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구민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7일부터 13일까지를 설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연휴 동안 각종 사고 예방과 구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통, 제설·한파, 안전·화재, 생활불편 해소, 물가 안정, 의료·보건, 훈훈한 명절 보내기, 공직기강 확립 총 8개 분야와 1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교통대책반, 제설대책반, 공원녹지대책반, 생활대책반, 의료대책반으로 편성해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먼저, 구민의 원활한 귀성·귀경을 위해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공용주차장 5곳을 무료로 개방하여 방문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승차 거부 등 심야 택시 법규 위반 사항을 특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단속하는 등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연휴 기간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산불 등 화재 발생 즉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구는 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 힘을 계획이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내 명절 성수품 가격 조사 및 가격표 시제 의무 대상 점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청소상황반을 운영해 무단투기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청소 민원에 신속 대응한다.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기간도 조정한다. 9일부터 10일까지 배출이 금지되며, 11일부터 정상 배출 가능하다.

광진구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안내상황실을 운영해 건국대학교병원과 해민병원에서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한다.

이 밖에, 복지 대상 주민과 기관에 위문금 전달, 긴급 지원대책반 운영, 독거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 등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구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구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부산시,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4곳과 '3조 6천억 원대' 투자양해각서 체결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운영 등에 3조 6천313억 원 투자, 직접일자리 1천22명 창출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부산시(시장 박형준)의 투자유치 전략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시는 6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입주기업 4개사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4개사는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인 ▲(주)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PFV ▲Empyrion DC 컨소시엄 ▲BEP&미래셋 컨소시엄 ▲(주)엘리스그룹이다.

따라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운영 등에 총 3조 6천313억 원을 투자하고 1천22명의 직접일자리 창출할 예정이다.

부가적인 생산유발효과는 8조 2천98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 4천552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5만5천449명이며, 이와 함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수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개사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고용하고, 데이터센터 건축과 설비 구축 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운영은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 성과는 시의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과 유관기관(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3조 6천313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박 시장 취임 이후 단일 사업 투자유치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지난 2021년 에코델타시티(EDC) 기업유치 협의회를 구성해 에코델타시티 내 17만7천80 제곱미터(m²)를 데이터산업구역으로 지정한 이래로, 건축을 허용용도 변경,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해제, 중앙부처 협의 등 유관기관(부서)과 적극적인 투



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산은 데이터센터의 입지로서 장점이 풍부해 이와 연계되는 상승(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로 나가는 해저광케이블 90%가 부산을 통해 해외망으로 연결돼 글로벌 서비스 제공이 쉽고,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매년 지역의 22개 대학에서 배출하는 전문 인재를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아울러,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기업들의 전기 수전 등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린데이터센터(DC) 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 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부산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존 공장형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설계와 우수한 기술이 적용돼 고용 창출 등 지역산업에 경제 적 파급효과가 큰 그린데이터센터를 조성·운영할 최적의 기업 4곳을 유치했다”라며, “이들 기업이 앞으로 3조 6천억여 원을 투자해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운영함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냉각 장치, 서버 장비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후방 분야 기업 유치도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조성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박사기념림

길

차마루, 관음굴, 오대산, 오대산계곡, 오대산자연휴양림

물

영양호, 영양호수, 영양호수공원

빛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International Park-Sky Park

길

오대산자연휴양림

물

영양호수공원

빛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맛

사면넛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항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영양편지

간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YEONGYANG ASSOCIATION citislow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포, 삼의계곡, 수허계곡, 분신계곡, 침벽공원, 축복샘,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생박물관, 분계수석야생화전시관

설레는 설 명절, 더 든든하고 더 편안하게 강원특별자치도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발표

강원특별자치도는 갑진년 설 명절에 도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에는 도민들이 더 든든하고, 더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생과 가까운 물가안정, 민생지원, 생활편의, 문화관광의 네 가지 분야 내용이 포함됐다.

물가안정 분야는 20개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595개의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생지원은 든든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2월에 집중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며, 전통시

장 소비촉진 캠페인 및 안전관리 5종 세트를 통해 전통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편의를 위해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 특별교통대책, 야간 병원·약국 운영 등 각 부문별로 개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설 명절 연휴기간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를 연계하여 더욱 여유롭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재 민생이 어렵지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모든 도민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원/기자



아산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사업' 추진

아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사업을 위해 올해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작업 편이 장비'는 작고 가벼워 오랜 시간 불편한 작업 자세와 과중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되는 장비는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고추 수확차 등이다. 아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신청자 중 4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중한 농작업 환경 개선과 손쉬운 영농활동 참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는 등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품명	사진	내용
농작업대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고추 수확차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고 햇빛 가리개가 있는 제품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으로 이동이 쉬운 제품
충전식 운반차		충전식으로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제품
충전식 예초기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충북도, 에어로케이항공 베트남 다낭 국제 정기노선 취항

현재 운항중인 일본·대만·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 첫 취항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둔 에어로케이 항공이 5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 국제 정기노선 취항식을 개최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이번 다낭 노선에 180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하여 2월 5일부터 주 7회(매일) 운항 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2023년 7월 일본 오사카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도쿄(8월), 대만 타이베이(9월), 필리핀 클락(11월) 등 국제노선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이번 베트남 다낭 노선을 추가하며 4개국 5개 국제선을 운영하게 됐다.

주력기체인 A320을 5대 보유하고 있는 에어로케이 항공은 2월말 경 기체 1대 추가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하



반기종으로 4대를 추가 도입하여 올해 기체를 1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필리핀(마닐라), 홍콩, 몽골(울란바토르), 일본(후쿠오카), 대만(까오슝), 마카오 등 추가적인 정기노선 취항도 계획하고 있어 청주국제공항의 노선 다변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에는 에어로케이 이외에도 티웨이 항공(베트남 나트랑, 태국 돈므앙, 중국 옌지 등 6개 정기노선), 이스타 항공(대만 타이베이 1개 정기노선) 등이 국제노선을 운항 중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공항을 활성화 하

기 위하여 신규 국제 정기노선 운항지원금과 정기노선 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수를 빠르게 회복하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도 했다.

이날, 취항식에 참석한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제노선 확대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주기장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중이다"라며, "특히, 도정 핵심현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에 항공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민원서비스 일시 중단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이 오는 13일 전국 동시 개통됨에 따라 전환기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2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9시까지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고납부서비스, ATM/CD기·전자납부 등 모든 납부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ARS와 기존에 부여된 가상계좌는 7일 오후 6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차세대 ARS, 위택스, 지로, 금융기관 창구, ATM/CD기를 통한 납부는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다.

이계일 정수과장은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급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 개편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겨울특별시 태백에서 펼쳐졌던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 방문객 58만 명이 방문하며 1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 전과 중반에 눈이 내려 태백을 찾은 관광객들은 태백의 실경과 눈 덮인 축제장을 만끽할 수 있

제31회 태백산 눈축제, 10일간 방문객 58만 명 성료

었다. 축제 첫 주에는 태백산눈꽃 전국 등반대회와 축제장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 위해 3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축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또한, 27일부터 28일까지 매봉산 천상의 숲과 대조봉 일대에 열린 '태백천상의 숲 백패킹 페스티벌'에도 70팀이 참가하여 색다른 태백 설산을 즐길 수 있었다.

특히, 눈축제 기간 중에 '전국 3대3 농구대회'와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가 열려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와 눈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었으며, 전국 각지 약 370여 명의 출향민들 또한 축제기간 중 태백을 방문하여 태백산 눈축제와 지역 명소를 관람했다.

태백시문화재단 관계자는 "31회를 맞이하는 태백산 눈축제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주셨다"며, "앞으로 다가올 태백의 사계절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주셔서 성황리에 마쳤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과 관광객분들의 불편없이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리며, 특히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단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행사가 더 뜻깊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유상근/기자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의회



'이자부터 신용회복까지' 학자금 대출 부담 서울시가 줄여준다

올해 청년 3만 5천명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년보다 2,500여명 확대

취업이 못 해 대출이자 상환여력이 없었는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덕분에 마음 편하게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감소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 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 후 채무금액의 일정부분(5%)을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신용회복도 돕는다.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1만 8,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5,000명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은 모집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자도 10월까지 모집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업 유지를 위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간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ICL)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22년 기준 상환 대상 금액은 약 223억 원 규모며, 이중 미상환 체납 비중이 약 68%를 차지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 의자로 등록되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사회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학자금대출로 인한 전체 신용유 의자 중 77%나 된다.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지난해 32,485명보다 2,500명 늘어난 35,000명(상반기 18,000명, 하반기 17,000명)이 대상이다. 예산도 전년대비 2억여원이 늘어난 38억 6,0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총 32,485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32억 6,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납야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신청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3월 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이를 확인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 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

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 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필요한 채무금액의 5%를 서울시가 재단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총 115백만원을 지원해 총 309명의 청년이 신용유 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인 500만원이 더 신청순 모집이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 의자로 등록해제를 원하는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은 2월 1일 10시부터 10월 1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고액의 학자금과 소득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제도와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강화하여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한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며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효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설정하고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향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처·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하여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원플랫폼·국민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원플랫폼·국민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찾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실제·계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산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향상을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고, AI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선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대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도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하여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담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 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또한, 재해·재난 상황 시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대규모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대구광역시,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투자유치 총력!

1월 31일 전략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자문관 전략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1월 31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과 투자유치 자문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자문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만들어질 거대한 신공항 경제권이 지역 내 투자유치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산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공항 경제권 건인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발 빠르게 준비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광역시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우중운 전문위원의 '로봇산업 전망과 기업유치방안' 발제에 이어 5대 미래신산업 중심의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는 5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윈스톱 투자지원과 함께 뛰어난 투자환경으로 대구권 51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 명의 졸업생과 135개 R&D 센터, IT·자동차·기계 등 분야별 특성과 대학의 인력양성을 통해 인력수급이 원활하다는 점과 8개 고속도로, 4개 국제항만, 산업선 철도,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도 교통·물류의 최적지임과 전국 최상위 수준의 의료·교육·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정주여건 등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5대 미래 신산업 중심의 국내외 영기업 유치와 더불어



어 신공항 경제권 내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동북아 거점기능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알리고, 이를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민간 전문가들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투자유치 자문관들에게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공조 강화와 함께 유차 후보 기업 발굴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우중운 전문위원은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이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으로 진화 중인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지역이 가진 인프라 강점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부품 및 서비스 로봇 중심의 핵심 테크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내외 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신공항 경제권을 견인할 전략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윈스톱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

장애관리체계 철저 확립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상시장애예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2 위험분산형 구조 개선 3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4 등급제 기반의 효율 관리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신속대응복구</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 6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 7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

디지털행정 체질 근본 개선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안정기반강화</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9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강화 10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12 인프라 복원력 제고
-----------------------------------------------------------------------------------------------------------------------------------------------------------------------------------------------------------------------------------------------	------------------------------------------------------------------------------------------------------------------------------------------------------------------------------------------------------------------------------------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교육청 도 단위 컨설팅단,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5일과 7일 양일간 교육청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각 2024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관련 도 단위 컨설팅단과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 조사관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추진됐다.

5일 실시된 도 단위 컨설팅단 역량 강화 연수는 컨설팅단과 지역별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컨설팅단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7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



강화 연수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건 조사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학교 문화의 이해, 학교폭력 개념, 제도와 사안 처리 절차의 이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의 이해, 조사 보고서 작성 실무와 사례 실습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2024년 처음 도입되는 전담 조사관은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되며,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상담·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22개 지역 총 156명의 전담 조사관을 모집하여 2월까지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후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 단위 컨설팅단과 전담 조사관 연수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과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북교육 가족 모두의 희망인 '학교폭력 제로(ZERO)'가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학교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비율 15%에 불과..

최근 10년간 학교 화재 총 72건, 매년 평균 7건 발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난 문경 화재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미래 주역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학교수는 633개로 각 학교별로 건물수는 총 2,521동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발생 시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는 389동으로 전체 학교 건물대비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학교 화재는 총 72건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에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나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은 학교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법 개정 후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됐으나 학교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학교 급식조리실에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나 이 또한 소급 적용하지 않는 권장 사항에 해당하여 설치된 곳은 전무 하다.

이에 따라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현행법 조항을 변경거리로 학생들의 안전을 간과해서만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보강이 필요하지만, 건물내에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는 등 학교 전역에 설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가장 높은 전기시설인 배전반 및 조리실 등에 소방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화재안전 예방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하는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태/기자

경북교육청, 전남과 공동 수업 아름다운 마무리, 2024년 만남 기약

2023학년도 경북·전남 학급 간 원격화상 수업 운영 결과 공유회 가져

경북교육청은 5일 '경북-전남 학급 간 원격화상 수업 운영 결과 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대 1로 매칭되어 원격화상 수업을 운영한 경북과 전남의 교사 20명,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 업무관계자 등 총 24명의 영호남 교육 가족이 비대면으로 만나 수업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여 2024학년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양질의 학습 경험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가 목적인 2023학년도 경북형 공동 교육 과정을 공동 수업 학교, 도·농 상생 학교(급), 초·중 연계 학교, 원격 화상 수업 학급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했다.

특히, 2023학년도에는 도내 학급 간 원격화상 수업 학급을 넘어, 전남 학급과의 원격화상 수업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경북-전남 각 10개 학급이 참여한 '학급 간 원격화상 수업'은 웹카메라를 통해 두 지역의 교실을 연결하여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간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원격화상 수업에 참여한 상양초등학교(문경)의 한 학생은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349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의 친구들과 같이 수업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며,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또, 원격화상 수업을 운영한 사동초등학교(경산) 교사는 "다른 지역의 선생님과 협력하여 공동 수업을 진행한 것은 교사로서 다양한 프로젝트 계획과 수행을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라며, "집단지성의 장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호남 지역 교사와 학생 간에 이뤄진 온라인 협력 학습을 통해 학생 주도 수업을 실현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도 함께 배워가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2024학년도에는 경북-전남 학급 간 원격화상 수업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영덕교육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학부모님과 지역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 배움에 주신 격려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더욱 노력하여 잠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그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새로운 한 해를 채워가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올 해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이한

강남까지 18분! 부천시, GTX로 5중 역세권 시대 연다

부천종합운동장 5중·대장역 4중 역세권 결정...강남 접근성 2.5배 개선 기대

부천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4개 노선(B·D·E·F)이 들어선다.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GTX 전체 노선 6개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이로써 부천시는 인천과 경기 전역, 신설 노선 연장 시 강원과 충청지역까지 철도망이 연결된 수도권 교통 핵심 요충지로 거듭난다.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단축돼 시민의 삶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총총한 교통망 구축을 토대로 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도시 미래 비전과 성장의 청사진을 그린다.

위 발표에 따르면 GTX-B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을 통과한다. 해당 역으로 신설 노선인 GTX-D·F가, 부천 대장역으로는 GTX-D·E 노선이 지난다. 이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은 5중 역세권(7호선, 서해선, GTX-B·D·F), 대장역은 4중 역세권(GTX-D·y분기·E, 대장-홍대선)이 된다.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는 GTX-B는 인천대입구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지자체와 긍정적으로 조율을 마치면 출퇴근까지 직결된다. 또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14분 내 진입 가능해, 기존 약 40분 소요되던 시간을 26분가량 단축한다.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이다.

GTX-D는 부천 대장을 기점으로 더블Y자 형태로 노선이 만나며, 부천종합운동장역-강남을 거쳐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한다. 특히 강남역까지 이동시간이 18분으로 줄어 강남 접근성을 기존의 2.5배가량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GTX-F는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대곡-의정부-덕소-수원-시흥 등 수도권 외곽을 순환한다. 대장을 지나는 GTX-E는 인천공항과 상암 DMC-구리-덕소를 잇는다. D·E·F 노선 모두 오는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부천시는 대장역에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병합하는 노선, GTX-B를 비롯한 광역급행철도 4개 노선, 지하철 1·7호선 및 서해선 등 총 9개 철도 노선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



철도망을 비롯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서창-김포 구간 지하 고속도로 등 도로망 구축 사업도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해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갖출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러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어디서나 서울로 20분 이내에 진입 가능한 서부권 교통요충지로 거듭난다.

부천시는 이 같은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중장기 계획에도 돌입한다. 우선 5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15.7만m2 부지에 차세대 문화·산업·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최근 마련한 중장기 개발 구상안에 ▲'문화도시 부천'의 인프라와 국가전략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 유치 ▲4세대 마이스(MICE) 산업 공간 마련 ▲부천 아래 나 건립 ▲첨단기술 활용 체육 공간 조

성 ▲지하 교통 환승 체계 연계한 판매 시설 등이 담겼다. 부천 대장에 들어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생태계로 조성할 방침이다.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계열사 7곳이 모여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만들고, 이를 앵커기업으로 유망 기업을 모아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GTX 노선 발표는 끊임없는 시의 노력과 시민의 염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속도 혁신과 문화·첨단 산업·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공간 혁신을 융합해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 청년 스마트팜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도, 1일 청년·사업 관계자 대상 스마트팜 사업설명회 개최

충남도는 1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년 스마트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청년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혜택을 제대로 알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청년농과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선 올해 변경된 청년 스마트농업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으며, 사업 혜택 활용 요령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도는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 장벽을 낮춰 줄 금융지원 부문을 상세히 설명했다.

스마트팜 청년농은 오는 3월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최대 2억 원까지 자립지원 대출이 가능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 무담보 보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스마트팜 경영 비용 대출에 따른 이자를 100% 무이자로 전액 보전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장 10년 이내로 100% 전액 보증 지원한다.

또 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수준 높은 스마트팜 시공협동조합과 경영 컨설턴트의 협조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영농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한다.

앞으로 도는 스마트팜 지원제도 안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해설서'를 전자책 형태로 게재하고 꾸준히 갱신해 최신 정보를 제공, 청년농 유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인동 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청년이 농업·농촌으



로 들어오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도는 그동안 청년 스마트팜 제도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영농현장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짜임새 있는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청년농이 도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신기 스마트팜 신축 및 리모델링 4개 사업 등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약 1조 8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용인특례시, 미국 윌리엄스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

반도체·IT 등 미래산업 선도 공통점 바탕 소통 협력키로...향후 협약도

용인특례시는 2일 미국에서 반도체와 IT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빌 그레벨 윌리엄스 카운티장, 브랜트 라이델 테일러시 시장 등과 만나 의향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시(City)보다 큰 행정구역이며,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 용인특례시 자매도시인 미국 서부 플러덴시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스 카운티의 면적은 2939km², 인구는 약 65만명이다. 매월 4000여명씩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텍사스주에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삼성전자가 22조원(170억 달러)을 투자해 약 150만 평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하는 곳인 테일러시는 윌리엄스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스 카운티에는 조지타운시, 테일러시 등 12개의 시가 있다.

우호 교류 의향서는 '양 도시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주민 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민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도시는 이 같은 협력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우호 교류 관련 협약을 맺기로 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데다 인구가 늘고 있는 점에서 많이 닮은 만큼 앞으로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빌 그레벨 윌리엄스 카운티장 등에게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윌리엄스 카운티와 우호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용인 이통·남사를 226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건설하는 국가산업단지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곳에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도 입주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하는데 2027년 봄 첫번째 팹이 가동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시작한 용인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 연구단지로 거듭날 것이며, 이곳에는 20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스카운티가 적극 협력하면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빌 그레벨 윌리엄스 카운티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 용인특례시와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테일러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조성될 예정인만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호 교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레벨 윌리엄스 카운티장은 또 "용인과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싶

다"고 했다.

윌리엄스 카운티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챗터 313'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결정이 잇따르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방문에 이어 윌리엄스카운티 주요 도시인 테일러시를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테일러시에 약 22조원(170억 달러)을 투자해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칩을 제조할 팹(Fab)을 신설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물론 우주항공이나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과 클린테크, 그린에너지, 생명공학 등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해있다. Dell Technologies, 테슬라, 애플, 한양이엔지 등 다수의 기업이 있다.

김범상/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